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1. 20.(수) 11:00 < 11.21.(목) 조간 > 배포 2024. 11. 20.(수)

미 신(新)행정부 출범 대비 통상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 산업부 주관, FTA종합지원센터 등 참석 「통상지원기관 협의회」 개최
- 미 신(新) 행정부 대비 우리 기업의 통상 우려 해소 위해 지원기관 간 협력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1.20(수) 14시 서울 무역센터 51층 회의실에서 최진혁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주재로 '통상지원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미 트럼프 신(新)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로 우려되는 우리 기업의 통상애로를 해소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과 같은 신통상규범에 대한 공동 대응 지원을 위해 통상지원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CBAM)생기원, 중진공, KTL, (공급망실사)코트라, KPC, (수출통제)무역안보관리원, (RE100)에공단, (수입규제)코트라, 대한상의, (해외인증)표준협회, 해외인증지원단 등

협의회를 계기로 FTA종합지원센터가 기존 FTA 수출지원을 넘어 통상지원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미 신정부 출범과 신통상규범 등장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통상애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통상지원기관들 또한 기관별 신통상규범 동향 및 지원 프로그램을 협의회에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이 신통상규범에 대비해나가도록 서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진혁 국장은 "미 신(新)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FTA지원센터와 통상지원기관들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협의회 운영을 통해 새로운 미 정책기조 및 EU CBAM 등 신통상 이슈에 우리 기업들이 잘 대응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유무역협정정책관 통상협정활용과	책임자	과 장	이경민 (044-203-5760)
		담당자	사무관	양용태 (044-203-576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통상지원기관 협의회 개요**

□ 추진 배경

○ 신통상규범* 지원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수출기업 통상애로 해소 지원 방안 논의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공급망실사지침, ESG, RE100, 수출통제, 해외인증 등

□ 회의 개요

○ **일시** : ’24. 11. 20.(수) 14시 ~ 15시 15분

○ **장소** : 무역협회 트레이드센터 51층 소회의실

○ **참석자**

-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책관(주재), 담당 사무관
- **(FTA종합지원센터)** 단장 및 활용정책실장, 담당 실무자 등
- **(지원기관)**(CBAM)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생산기술연구원 (ESG)생산성본부, (EU공급망실사지침)KOTRA, (수출통제)무역안보관리원, (수입규제)대한상의, (해외인증)해외인증지원단, (RE100)한국에너지공단,

○ **논의내용** : ①FTA종합지원센터 기능 개선방안
②「통상지원기관 협의회」 향후 운영 방향
③기관별 신통상규범 대응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

□ 세부 시간 계획

시간		주요내용
14:00 ~ 14:05	5′	• 모두발언
14:05 ~ 14:10	5′	• FTA종합지원센터 기능 개선방안 요약
14:10 ~ 14:15	5′	• 통상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방향 발표
14:15 ~ 15:00	45′	• 기관별 신통상규범 지원 현황 및 계획
15:00 ~ 15:10	10′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5:10 ~ 15:15	5	• 마무리